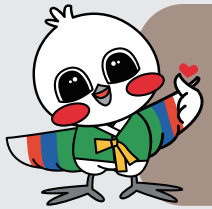
해온이의 서구 역사여행 19

1980년 그날의 이야기

최 혁 지음

이야기도움
은미희
이원화
임성규
정인서

사진도움
정인서
서구문화원



광주 서구 캐릭터 '해온이'를 소개합니다.

'해온이'는 서구의 상징 새인 해오리와 따뜻할 온(溫)이 합쳐진 것으로 따뜻한 서구를 상징하며 빨간 볼은 따뜻한 마음씨를, 두 날개는 높은 비상을 의미합니다.

1980년 그날의 이야기

■ 10일간의 기억, 역사를 바꾸다

그날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다. 아마도 그 기억은 아들과 딸, 그리고 그 아들과 딸로 이어져 이 나라의 올바른 가치로 기억될 것이라 생각했다. 역사의 가치는 기억의 가치로 남아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날은 불과 10일간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민주화의 기틀을 만들어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해온이는 그 때 현장에 있었지만 사람들을 도우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늘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라도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일구어낸 민주의 가치를 전파하려 마음먹었다.

▲ 양동시장 주먹밥 만드는 아주머니들

해온이는 오늘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몇 곳을 돌아볼 생각이었다. 그곳을 되돌아보며 당시를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광주 정신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양동시장으로 향했다. 마침 배가 무척이나 고팠다.

시장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주먹밥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갓 지은 밥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뒤 깨를

뿌려 넣은 고소한 맛을 더했다. 간이 잘 된 밥을 양손으로 꼭꼭 눌러 뭉쳤다. 할머니는 뭉친 밥을 다시 김 가루에 굴려 주먹밥을 완성했다.

해온이는 침이 꿀꺽 넘어갔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본 해온이에게 "주먹밥 하나 주렴!"하면서 대답도 하기 전에 벌써 한 손으로 건네고 있었다. 해온이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나서 두 손으로 얼른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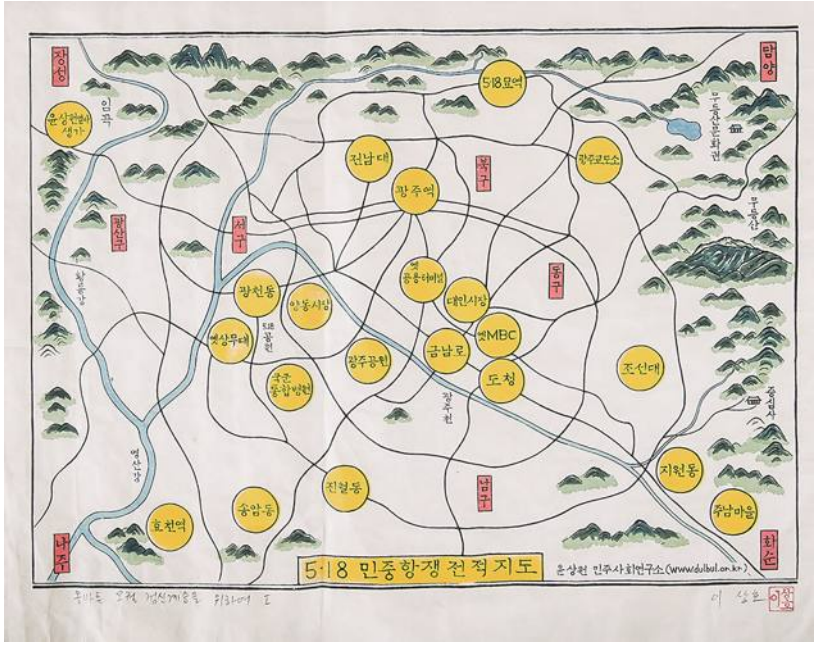
"그 때는 이렇게 만들지 않았지. 그저 밥에다가 소금 치는 주먹밥이 전부였어."

해온이는 양동시장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장사를 하던 아줌마들이 힘을 합쳐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민군들에게 나누어 먹였던 일이 떠올랐다. 당시 40대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벌써 80에 이르는 나이가 되었다. 곽미순 할머니, 오옥순 할머니, 강선자 할머니, 이영애 할머니, 조기례 할머니 등 아직은 모두 건강해보였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이랬다.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총을 들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계엄군을 물러가라' 외치며 다녔다. 도청 앞에는 죽은 사람을 볼 수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양동시장 상인들은 '아직' 살아남은 이들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여기저기서 자신들도 동참하겠다고 했다. 걱정을 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장 한쪽에 화덕을 세우고 솥을 걸었다. 솥에 밥을 안치고 장작으로 불을 땠다. 양동시장에 언제 계엄군이 쳐들어올지



▲ 5.18민중항쟁전적지도

몰랐다. 혹여나 누구에게 걸릴까 싶어 으슥한 곳에서 숨어 지어야 했던 밥이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밥에 소금 간을 하고 꼭꼭 뭉친 주먹밥이 탄생했다. 시민군들을 태우고 지나가는 트럭에 올려주기 시작했다. 행여 목에 얹힐까 싶어 물도 올렸다.

양동시장에서 시민군들을 위해 주먹밥을 만든다는 소문이 금세 퍼졌다. 누구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십시일반 쌀을 가지고 왔다.

주먹밥은 도청을 지키고 있는 시민군들에게도 전해졌다. 몇몇 할머니는 다 된 주먹밥을 머리 위 고무 대야에 이고 지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을 따라, 시내 곳곳에 널린 시체를 넘나들며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텔레비전에서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했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고도 했다. 사람들은 화가 나 제대로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국에 몰려가 방송국을 불태웠다. 광주 시내는 마치 전쟁터 같았다.

그런데도 어느 곳 하나 도둑이 들었다는 곳이 없었다. 시민들은 질서를 잘 지켰다.

■ 주먹밥과 '죽음의 행진'

해온이는 양동시장을 나와 돌고개를 넘어 농성광장으로 갔다. 우리는 광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광장이기보다는 작은 공원에 불과하다. 그곳은 농성역 1번 출구와 연결되는 곳이다. 농성공원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 민중항쟁 사적 16'이라는 선명한 글씨의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 농성광장 5.18사적지 표지석

해온이는 가끔 이곳에 들리곤 한다. 그 때마다 마치 그 일이 지금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해온이는 한 손으로 작은 가슴을 툭툭 치며 둥그런 달 모양의 5.18 표지석을 물끄러니 쳐다보았다.

그리곤 표지석 동판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다.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5월 22일 광주시내에서 쫓겨 온 계엄군이 통제선을 설치하고 농성광장의 시민군 방어선과 대치하면서 인근 주택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한 곳이다. 시민군과 계엄군이 이곳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시민 수습대책위원들이 이곳 사선을 넘나들며 상무대에 있던 계엄사를 방문해 중재와 협상을 시도했다. 5월 26일 아침에는 계엄군이 시내로 다시 진입하려 하자 시민 수습위원들이 이곳 농성광장에 맨몸으로 누워 저항하는 '죽음의 행진'을 했던 현장이다.

해온이는 글을 읽고 나서 한참동안 그 자리에서 떠나기가 힘들었다. '죽음의 행진'이라는 말이 가슴을 쿵쿵쿵 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한 할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손잡고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당시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는 당시 농성공원 일대에서 계엄군과 대치했던 자리에 참여했던 모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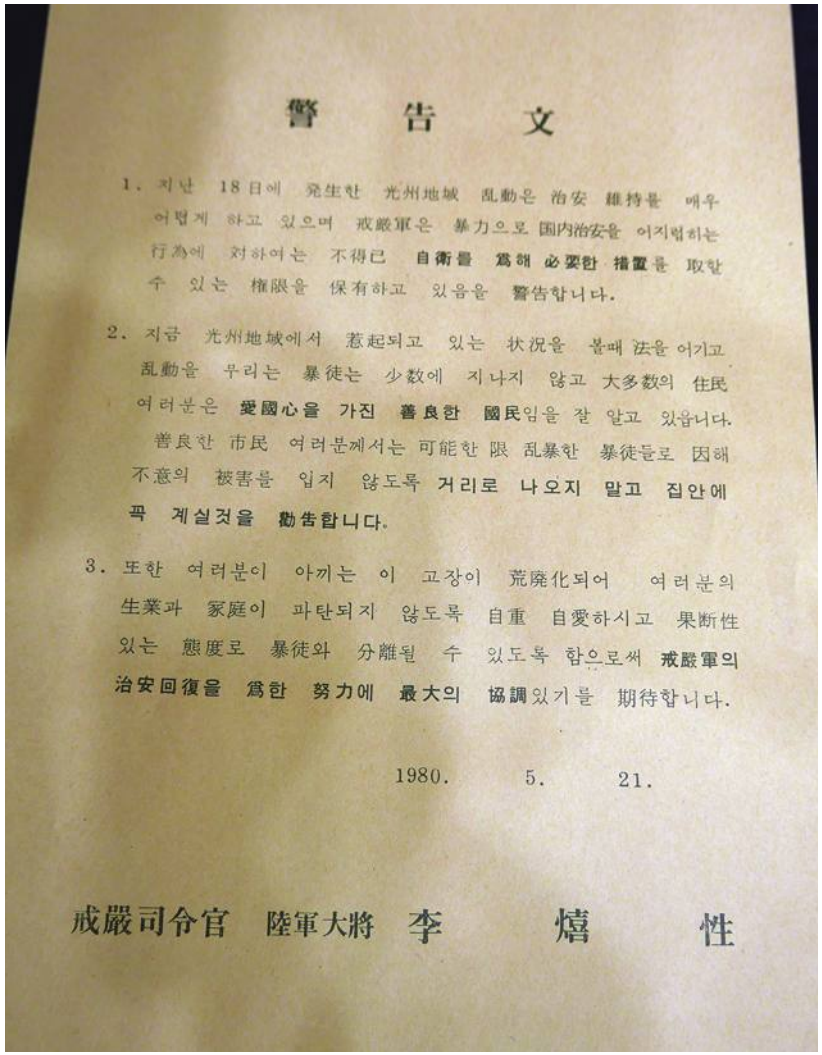
아이는 할아버지가 그때 계엄군이 이곳에서 탱크를 앞세우며 시내로 들어올 움직임을 가졌을 때 많은 시민들이 모여 탱크 앞에 목숨을 걸고 드러누웠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해온이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당시 매우 긴박했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광주국군통합병원 앞 큰길에는 모래주머니로 가득 쌓은 참호가 만들어졌고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다.

따따따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더니, 방송을 하며 하늘에서 전단지가 쏟아져 내렸다. 광주시민들은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누군가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는 지난 22일 광주 시내에서 쫓겨 온 계엄군이



警 告 文

1. 지난 18日에 発生한 光州地域 乱動은 治安 維持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으며 戒厳軍은 暴力으로 国内治安을 어지럽히는 行為에 対하여는 不得已 自衛를 爲해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는 権限을 保有하고 있음을 警告합니다.

2. 지금 光州地域에서 惹起되고 있는 状況을 볼때 法을 어기고 乱動을 무리는 暴徒는 少数에 지나지 않고 大多数의 住民 여러분은 愛國心을 가진 善良한 國民임을 잘 알고 있읍니다. 善良한 市民 여러분께서는 可能한 限 乱暴한 暴徒들로 因해 不意의 被害를 입지 않도록 거리로 나오지 말고 집안에 꼭 계실것을 勸告합니다.

3. 또한 여러분이 아끼는 이 고장이 荒廃化되어 여러분의 生業과 家庭이 파탄되지 않도록 自重 自愛하시고 果断性 있는 態度로 暴徒와 分離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戒厳軍의 治安回復을 爲한 努力에 最大의 協調있기를 期待합니다.

1980. 5. 21.

戒厳司令官 陸軍大將 李 熺 性

▲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의 경고문

광주를 지키려는 시민들을 막기 위해 통제선을 설치했던 곳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계엄군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저들은 탱크, 장갑차까지 몰고 와 우리 시민군들을 죽이고, 목포, 나주, 장성, 담양 등 광주 외지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계엄군들은 여기 주택가에 무차별적 총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무고한 우리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고립되었습니다.”

한 젊은이의 목소리는 쩡쩡 울렸다.

“계엄군들은 오늘 폭도 소탕작전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들을 지키려는 우리를 폭도라고 합니다. 5월 18일부터 광주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을 쏜 저들이 용감한 우리 시민군들에 의해 물러나더니 오늘 다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광주 국군통합병원에 주둔했던 계엄군들이 탱크를 몰고 여기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여 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쳤다.

“안됩니다. 우리가 광주를 지켜야 합니다. 죽음으로 맞섭시다.”

광주를 지키자는 함성이 이어졌다.

"우리가 저 탱크들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광주 시민은 모두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한 신부님은 더욱 비장하게 외쳤다.

모여 있던 시민군들은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도청에서 약 4km를 걸어온 시민군들과 연합했다. 시민군들은 다가오는 탱크를 향해 길바닥에 드러눕기 시작했다.

해온이는 눈물이 나왔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눈앞에 있는 탱크 앞에서 드러누울 수 있는 용기에 절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계엄군들은 탱크를 돌렸다. 시민군들의 함성이 귀를 울렸다.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해온이도 그들을 따라 애국가를 불렀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 "그는 말을 못해 죽었다"

해온이는 눈물을 닦아내며 옛 광주 국군통합병원으로 갔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이곳은 5.18 민중항쟁 사적지 23호이다.

▲ 창문들이 뜯어진 채 폐허가 된 통합병원 옛 본관의 모습

이곳은 군인이든 시민군이든, 연행과정에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사람이건 모두 모이는 장소였다.

첫 환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날은 18일이었다.

은미희 소설가의 글에 따르면 한 의대생은 금남로에서 시위를 지켜보다 계엄군의 군화발에 췌장이 파열돼 이송돼 오기도 했다.

그는 18일 금남로에서 시위를 지켜보다 공수부대원에게 쫓겨 골목길로 도망가다 붙잡혀 세 명의 공수부대원들에게 군화발로 복부를 무자비하게 구타당했다. 그리고는 연행되어 머리를 땅에

박은 채 있다가 밤이 되자 군용트럭에 실려 상무대 감방에 투옥되었다.

그는 19일 밤이 되자 심한 복통과 구토에 시달려야 했다. 급기야는 쇼크 상태에 빠져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췌장파열에 의한 혈복증. 당시 의료기술과 장비로는 꽤 어려운 수술이었다. 다행히 의대생은 목숨을 건져 현재 광주시내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 그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그 의대생의 선배였다.

21일이 되자 총상환자들이 정신없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부상 정도도 다들 위급한 환자들이었다. 그 누구도 가볍게 지나칠 수 없었다. 자신들의 손길에 환자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생각에 의사들은 피곤했지만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그들을 치료하느라 의료진들은 열흘 동안 제대로 잠 한 번 자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전하는 말에 의하면 국군통합병원에 가장 많은 중상자들이 실려 갔다고 했지만 군 기밀 누설 금지 조건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집계할 수 없었다고 한다.

27일, 광주가 계엄군에 의해 진압이 되고, 도청에 남아 끝까지 항전을 계속하던 시민군들이 무더기로 잡혀 병원으로 들어왔다.

죽음과 대면한 이들의 눈에는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 공포가 블랙홀처럼 그들의 몸에서 모든 감정들을 빨아들였다.

여기저기 깨지고 다쳤지만, 자신들의 몸에 난 상처의 고통마저 그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듯 통증도 호소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보이지 않는 동료들의 안부를 묻는 질문에 동지들의 죽음을 숨기거나 서로를 격려하며 공포의 시간 시간들을 힘겹게 버텨냈다.

이들은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동료들의 활동을 끝까지 감추어 주거나 말을 하지 않는 끈끈한 동지애를 발휘했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은미희씨는 글 말미에 "국군통합병원. 이들은 숨어있는 광주의 수호천사였다."고 적었다.

당시 국군통합병원장이었던 현재 광주의사회 김연균 고문의 증언에 따르면 5.18 첫 사망자로 농아 김경철을 직접 검시한 결과 참혹한 모습에 눈물이 나고 "이건 살인입니다"라고 계엄분소장인 윤흥정 사령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마침 이곳에서는 광주비엔날레 행사의 일부로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사실 그곳은 오랫동안 방치된 폐허였다.

▲ 통합병원내 국광교회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마이크 넬슨 같은 세계적인 작가는 광주의 상처와 기억을 빛과 거울과 같은 소재와 설치 표현 방식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공간이 예술 형식을 통해 1980년 이후 38년 만에 공식적으로 대중과의 만남을 가진 것이다.

마이크 넬슨은 국군통합병원 본관 인근 '국광교회'를 전시장소로 택했다. 작품 재료는 병원 본관 건물에서 떼어낸 '거울'을 활용했다. 작가는 건물 내부를 거의 손대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놓아둔 채, 60여개의 거울을 매다는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깨진 것은 깨진 것대로, 오래된 것은 오래된 그대로 떼어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울은 옛 모습 그대로 변형을 주지 않았다. 거울에는 충성, 예방접종 안내, 이발 안내 등 당시 시대상과 역사를 담은 문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거울은 축적된 시간의 증인인 셈이다.

전시가 끝나면 이 공간은 어떻게 되지. 해온이는 궁금했다.

이곳에서 불과 5분여 거리에 '악명높은' 505보안부대 옛 터가 있다. 당시엔 통합병원은 천국, 보안부대는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505보안부대는 5.18사적지 26호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과 민주인사를 고문하고 5.18 왜곡·조작에 가담했던 공간이다.

아직은 정확한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국군통합병원과 505보안부대가 있던 자리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로 조성하고 녹지공간은 열린쉼터로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505보안부대 옛 사무실의 문에 아직도 '보안을 생활화합시다'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발산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안도 있다. 병원부지와 건축물을 재활용하고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교류센터로 재생한다는 것이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를 전시하는 공간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토론회에서는 505보안부대와 국군광주병원 옛터의 활용방안을 두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엇갈렸다. 505보안부대 건물의 일부 혹은

▲ 505보안부대 입구

전부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입장과 보안부대의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 5.18사적지, 새로운 공간 탈바꿈

해온이는 시청에서 멀리 마주보이는 옛 상무대 입구에 있는 상무대 표지석을 찾아갔다. 상무대라고 한자로 쓰인 글씨는 1952년에 상무대가 처음 창설될 당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썼다는 상무대 표지석

대통령의 글씨이다.

상무대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대의 군사교육 시설이었다. 보병, 포병, 기계화, 화학, 공병 등 약 6천 명 정도의 군인들이 상무대에 상주해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곳이다. 상무대의 역사는 그 만큼 깊고,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런데 5.18민주화운동 때 상무대에 계엄군들이 상주하면서 광주시민들과 괴리감이 일기 시작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에 큰 아픔을 남겼다. 한편으로는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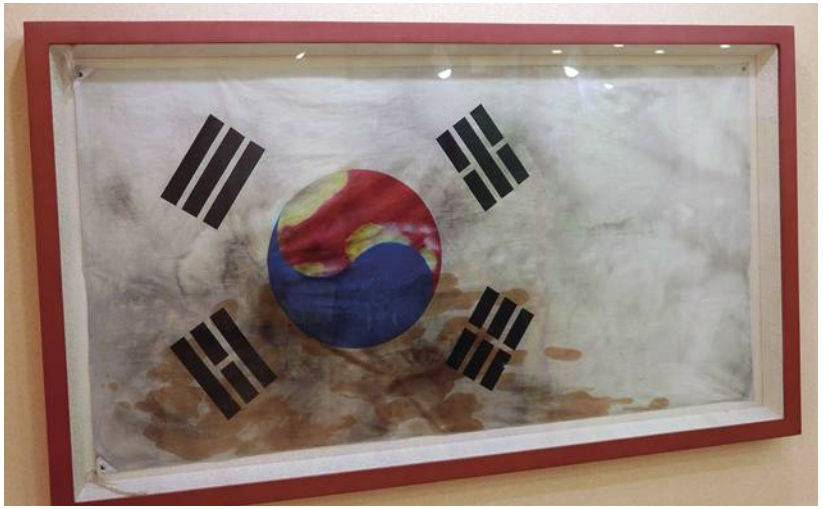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큰 힘이 되었다. 큰 희생으로 광주를 지켜낸 광주 시민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뜻을 담아 1994년에 상무대를 장성으로 이주시키고, 여기 상무대 터를 상무지구로 개발하게 되었다.

상무지구에는 시청과 법원, 교육청 등 공공시설이 많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해온이의 눈에 띄는 건 무엇보다 화려한 간판들이었다. 술집과 모텔이 많다는 것에 놀랐다.

해온이는 이어 5.18자유공원을 찾았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뒤쪽에 있었다. 5.18자유공원은 5.18의 아픔을 교육으로 일깨우는 곳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군사재판 현장이던 상무대 법정과 영창이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다양한 자료를 전시중인 자유관이 눈에 띄었다. 해온이는 먼저 그곳을 보았다. 자유관에는 5.18 당시의 기록과 신문, 사진 등이 있었다. 희생자 시신을 덮었던 태극기도 있었다.

자유관을 보고 5.18민주화운동 때 연행자들이 고문과 조사를 받았던 헌병대 중대 내무반으로 갔다. 임시취조실로 사용했다는 헌병대 식당과 고문수사와 재판을 지휘한 헌병대 본부사무실 등에는 당시



▲ 5.18자유공원 전시실 자유관(위) 5.18자유공원 전시실에는 망월동에 묻힐 때 관에 덮혔던 태극기가 피묻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아래)

모습을 재현한 밀랍인형이 있었다. 보는 내내 해온이는 가슴이 덜덜 떨렸다.

영창 앞에는 계엄군과 시민들이 마네킹으로 재현되어 있었다. 시민들이 어디로인가 끌려가고 있었다. 헌병이 모래와 자갈만 있는 맨바닥에서 사람들을 머리를 박게 하고 발로 찰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마네킹인데도 진짜 사람처럼 느껴져 보기만 해도 겁이 났다.

이어 상무대 영창으로 들어갔다. 여섯 개의 방이 부채모양으로 둘러 있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감시한다고 했다. 방에는 사람들이 창살을 붙들고 있는 밀랍인형이 있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밀랍인형이 마치 해온이에게 외치는 듯 했다. 해온이는 당시 이 조그만 영창 한 곳에 150여명씩 오밀조밀 앉아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밖으로 나왔다. 푸른 하늘을 쳐다보니 가슴이 뻥 뚫렸다. 자유공원의 넓은 잔디가 유난히 푸르게 보였다. 큰길가에 반달 모양의 둥그런 기념탑이 있었다. 하늘을 상징하듯 둥그런 모양이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과정 또는 그 후에 숨진 일곱 분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박기순, 윤상원, 박용준, 박관현, 신영일, 김영철, 박효선, 이

▲ 들불 7열사

일곱 분을 말해 들불 7열사라고 부른다. 이곳을 들불열사기념탑이라 한다. 기념탑에 새겨진 열사들의 얼굴이 선으로 이어졌다. 마치 북두칠성 모양 같았다.

해온이는 이 모습이 별은 언제나 어두운 하늘을 밝히면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처럼 일곱 개의 별이 이어져 만들어낸 북두칠성이 되어 광주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것 같았다.

5.18민주화운동 때 광주시민들의 대변인을 했던 윤상원 열사는 시민군 가운데서 가장 울림이 큰 인물이었다. 그는 들불야학 강학을

하면서 민주화의 뜨거운 열망을 키웠다. 윤상원 열사는 계엄군들이 옛 전남도청에 쳐들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옛 전남도청을 떠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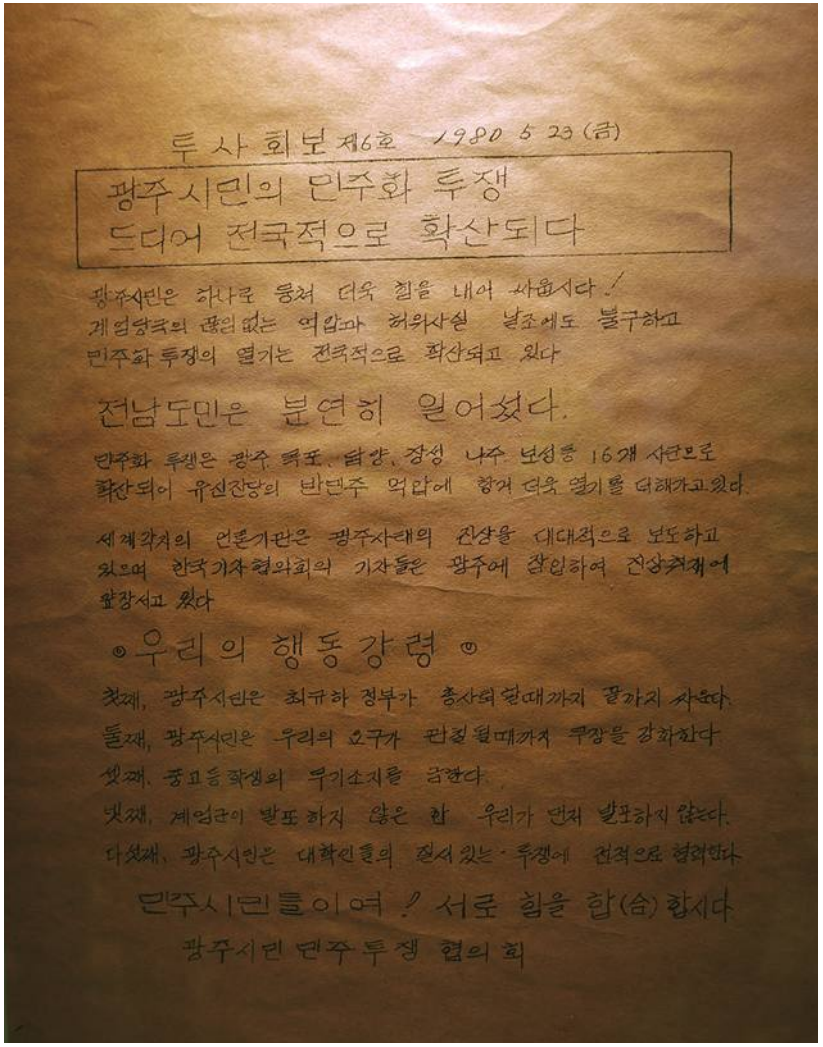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는 1980년 5월 26일 마지막 외신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하고 외쳤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열사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마지막 결사 항전지 전남도청에서 복부에 총상을 입고 서른 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해온이는 들불이란 이름은 박기순 열사가 붙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설가 유현종 선생의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쓴 《들불》을 읽고, 거기에서 들불을 가져와 처음 들불야학이라고 정했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야학을 세운 그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나중에 윤상원 열사와 영혼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들불야학은 광주최초의 야학이었다. 야학 선생님들을 강학이라고 불렀다. 강학은 광천동 공단지역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공부를 가르치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광천시민아파트는 광주·전남 최초의 노동야학인 들불야학의



투사회보 제6호 1980 5 23 (금)

광주시민의 민주화 투쟁
드디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광주시민은 하나로 뭉쳐 더욱 힘을 내어 싸웁시다!
계엄당국의 끊임없는 억압과 허위사실 날조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투쟁의 열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민은 분연히 일어섰다.

민주화 투쟁은 광주, 목포, 담양, 장성 나주 보성등 16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유신잔당의 반민주 억압에 항거 더욱 열기를 더해가고있다

세계각처의 언론기관은 광주사태의 진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한국기자협회의 기자들은 광주에 잠입하여 진상취재에
활장서고 있다

◎우리의 행동강령◎

첫째, 광주시민은 최규하 정부가 총사퇴할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둘째, 광주시민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강화한다
셋째, 중고등학생의 무기소지를 금한다
넷째, 계엄군이 발포하지 않은 한 우리가 먼저 발포하지 않는다.
다섯째, 광주시민은 대학인들의 질서있는 투쟁에 전적으로 협력한다

민주시민들이여! 서로 힘을 합(合)합시다

광주시민 민주투쟁 협의회

▲ 투사회보

근거지였다. 들불야학은 처음엔 시민아파트 바로 옆 광천동 성당 교리실에서 시작했다. 1979년 1월 시민아파트 다동 2층 방으로 들불야학 학당을 옮겼다.

5.18민주화운동 때에는 윤상원(1950~1980)과 박용준(1956~1980) 등이 5.18학살을 고발한 최초의 민중언론 〈투사회보〉를 제작한 곳도 시민아파트 들불야학 학당이었다. 5.18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옥중단식 뒤 사망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1953~1982)과 5.18시민군 기획실장 김영철(1948~98)도 들불야학 강학들이었다.

역사의 현장이었던 광천시민아파트와 그 일대가 재개발로 인해 헐린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부에서는 시민아파트를 보존하자는 주장도 있다. 3개의 아파트 가운데 다동이라도 남겨두고 5.18문화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게 해온이의 바람이었다.